

“부화업계의 당면 주요문제와 발전방향”

“**업계발전은
양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양계인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김 호 섭
전호부회장 영업이사

1. 격변하는 20여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란이나 닭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자가 없었고, 다만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몇 마리씩의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정도였기 때문에 번식 방법도 자연부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60년대 중반부터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업용 전문 양계장들이 등장하면서 병아리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부화의 필요성이 우리나라 상업용 부화업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60년대 중·후반기 전국엔 규모나 시설면에서 영세하지만 이미 100여개의 부화장이 개업하고 있다.

당시 전용종 닭은 없었고 겸용종이 교잡 개발된 정도였다. 백색레그혼을 산란용으로 기르기도 했지만, 백색레그혼에 뉴햄프셔 또는 프리마스 룩의 교잡종을 만들어 암병아리는 산란용으로 수병아리는 육용(주로 500~600g정도 길러 영계백숙)으로 이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닭의 생산능

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코니쉬종이 도입되면서부터 부화업계는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며 얼마후 70년대 초반에 외국의 유명 육종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부화업이 하나의 업종으로써 크게 향상되는 큰 전기를 마련한다. 이때부터 부화업계는 외국의 능력이 우수한 종계의 수입과 더불어 선진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양계산업의 빠른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한다.

70년대 초반 세계 경제를 뒤흔들던 곡물과동과 석유과동의 치명적인 영향을 입어 많은 부화업체들이 도산 폐업하는 어려운 시련기를 거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 양계산물의 급격한 소비신장에 힘입어 영세했던 부화업계가 생산기반을 다지고 확충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어서 정부 당국이 취해준 외국종계 수입금지 조치로 부화업계는 또다시 계속되는 호황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3~4년간 지속된 호경기는 기존 부화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의 촉진과 더불어 많은 신규 부화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호조건

이 되었다.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1979년도 전국에 부화장수는 무려 300여개에 이르르고 있어, 1979년도의 극심했던 부화 불경기는 당시 세계적인 불황과 에너지 파동이 공교롭게도 겹치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화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이렇게 또 한차례의 극심한 부화 불경기는 도산과 폐업 또는 주인이 바뀌는 시련과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80년대 들어서 부화업계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걷고 있으나, 아직 그 기반이 약해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된 업이라서 매년 상당수의 업체가 도산 또는 폐업하거나 전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년도별 국민 1인당 계란과 닭고기 소비량

〈표 1〉

년 도	국민소득(\$)	계 란(개)	닭 고 기(kg)
1962	87	30	0.5
1965	105	32	0.6
1967	142	45	0.8
1969	210	78	1.3
1970	248	77	1.4
1972	316	84	1.6
1975	591	83	1.6
1977	1228	98	2.0
1978	1406	101	2.2
1980	1481	119	2.4
1982	1800	115	2.5
1983	1884	123	3.0
1985	1960	125	3.2

(자료 : 축협중앙회)

사실, 70년대 중·후반의 부화 호황을 맞아 급격히 증가하는 양계산물의 수요 충족에만 급급했던 부화업계가 내실보다는 외형성장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 지금 우리업계가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점야기의 근원이 된 듯하다.

한국 부화업계는 이제 불과 20여년의 짧은 역

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다수의 회생이 있긴 했지만 부화수준을 외국의 선진수준으로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부화업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양계산업의 급진적 발전을 이끌어 온 부화업계의 공로는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업계가 이룩한 업적 가운데 획기적인 사실 하나는 양계산업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가금 육종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량된 국산닭이 우리보다 몇배의 오랜 양계역사를 가진 선진 외국의 유명 육종회사의 닭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데 조금도 뒤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가금육종국가에 리스트 되어 있다는 점은 실로 자부심 느낄만한 사실이다.

2. 도약단계에 이르러

부화업계의 무리한 경영 결과로 초래된 1984년도의 극심했던 부화 불경기는 또 한차례 허약한 부실 부화업체들을 도산, 폐업시키거나 휴업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여, 1985년말 현재로 전국에 부화장수는 대략 220개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160개 업체로 추정한다.

따지고 보면 부화업계의 연간 병아리 판매의 형이 500억원에 불과한데 200개 이상의 업체가 경합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야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언제 또다시 새롭게 많은 부화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전체외형이 500억원이라 했지만 사실은 상위10개정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약 60%를 제하고 나면, 상당수의 업체들은 연간 판매액이 1억원정도 밖에 안되는 영세규모라는 것이 부화업계가 안고 있는 취약요인이다. 기회주의적인 사고와 무계획적으로 무모한 경영을 일삼는 사이비 업체나 부실경영 업체는 하루빨리 정비되어, 건전한 사고와 최소한의 사명감을 가진 부화인만이 우리업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마땅하리라.

지금 부화업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급격한 양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준비, 그리고 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 저해요소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양계산물을 포함한 축산물의 소비증가율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국민소득 2천불대를 우리도 드디어 넘어섰다. 정부당국의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1년도 양계산물 소비예측에 의하면, 계란은 현수준에서 50% 신장하며 닭고기는 무려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여기에다 또 한가지 고무적인 뒷받침은 최근 선진 외국들에서 육류 소비추세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보다는 닭고기 선호 경향이 높아져, 닭고기 소비증가율이 타육류의 그것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90년대 급격히 증가할 양계 산물의 소비증가를 최소화한 자연추세대로라도 신장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업계에 맡겨진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부화업계가 내실 있는 착실한 준비와 과감한 체질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한다.

3. 당면주요문제와 발전 방향

1)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관리 수준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관리 수준은 양계산업 선진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 부화위생 관리는 양계 생산성에 직결되어 양계산업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화위생이 양계산업 발전의 선결 조건인 것이다.

한국 양계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닭의 생산능력 발현이 품종 고유의 유전능력 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생관리를 받고 생산된 병아리였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근래에 와서, 양계농가들의 병아리 선택기

준에 있어 품종보다도 병아리의 위생상태를 더 중시하는 것만 보아도 부화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부화업의 성패는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달려있다. 세균이나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병아리 생산 노력 없이는 결코 전진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종계장과 부화장의 효과 높은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생산시설이나 생산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해 본다.

2) 양계산업의 안정

양계업 없는 부화업은 존재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 부화업계와 양계산업은 뿔래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공존공영해야 하는데, 일부 부화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양계업체와 같은 배를 타고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양계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 결국 자승자박하는 예를 가끔 보아온다.

양계산업의 발전이 부화업계의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므로, 업계는 양계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능동적인 협조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당면 양계산업의 발전 저해요인이 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 문제와 유통부분의 전근대화 그리고 양계산물의 소비증대를 위한 홍보 및 광고활동의 부족임을 첨언해 본다.

3) 종계 사육수수의 적정조절

양계산물의 수요예측과 더불어 거기에 필요한 적정수준만큼의 종계만을 사육하게 되면, 양계·부화업계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자유경쟁하에서 산업의 발전은 건전한 자유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리대로 가능하리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아직 우리업계는 그러한 여건 성숙이 되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적절한 종계 수급조절이

양계산업과 부화업체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정부 차원에서 종계 수급조절을 위해 몇차례 시도했던 바이긴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누구든지 수입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외국종계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다.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외국으로부터 종계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동안 외국종계 도입이 양계산업과 부화업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와 우리업체에 끼친 손실과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외국종계 도입으로 새로운 질병이 도입되어 입은 피해, 생산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 종계 도입으로 인한 손해, 외국에서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종계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양계환경 여건에 적응되지 못해 야기된 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 무절제한 과다수량 도입결과 과잉생산 유발로 인한 손해 등 직접 또는 간접 피해와 손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986년 현재 국내에서 길러지고 있는 닭은 산란용 백색계 8가지와 유색계 7가지가 경합되고 있으며, 육용계는 무려 10개 품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종계 전시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선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업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종계도입을 비롯한 종계의 수급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 또, 양계산업의 백년대계에서 언제까지나 외국으로부터 많은 종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4) 주력 선도업체들의 역할

과거 부화업체를 주도하여 인도해 나가야 할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업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예는 얼마든지 있다.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소한 상위 15개 정도 업체들만이라도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

전체 관점에서 우리업계를 규합하고 리드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상대가 망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퇴행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화인이 섞여있을 때 부화업체의 발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주력 선도업체들은 첫째로, 부화업체의 단합을 위해 선두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둘째로,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척결에 앞장서야 하며 넷째로, 새로운 사양기술이나 관리기법 개발부분에 과감하게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우리업계를 이끌어갈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한다.

5) 생산성과 관리개선

부화생산성이라 하면, 산란율, 수정율, 종란율, 병아리발생율 그리고 배부율(분양율)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나쁘면 생산성은 낮아지게 되므로 부화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경영이나 판매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어떤 부화장도 결코 발전할 수 없음을 부연해둔다.

올바른 사양관리 기술의 습득, 합리적인 환경조성 노력,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생산비절감을 위한 관리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관리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앞서가는 업체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우리업계는 실로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또 과거와 같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하는 잘못을 초래하고, 90년대 양계산물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 되면, 우리의 시장을 외국상품에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까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업체가 도약하느냐, 정체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업체에 달려있다■